

# 창립 3주년 기념 등반대회 관악산에서 개최



우리 ESCO협회의 창립 3주년을 기념하는 등반대회가 5월 4일 봄꽃 만발한 관악산에서 열렸다. 이번 등반 대회에는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담당기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ESCO협회의 3돌을 함께 축하하고 회원사들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마침 '관악산 철쭉제' 행사가 한창이던 이날은 곳곳에서 경축분위기를 자아냈다.

관악유원지 입구에 집결한 일행은 오전 9시에 산행을 시작해 호수공원과 제4야영장, 연주암, 깔딱고개를 거쳐 오후 1시 경 과천에 도착했다.

도차후 최석곤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바쁜 외중에도 불구하고

하고 ESCO협회의 창립 3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ESCO사업과 더불어 우리 협회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ESCO협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회원사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관악산 철쭉제" 행사가 한창이던 이날은 곳곳에서 경축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이날 등반대회에 참가한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ESCO협회의 3돌을 함께 축하하고 회원사들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의 표정...^L^



(왼쪽사진) 관악산 등반대회  
이 대웅전 배경으로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ESCO협회의 3돌을 함께 축하하고 회원사들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오른쪽사진) 이날 행사가 한창이던 이날은 곳곳에서 경축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등반대회에 참가한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ESCO협회의 3돌을 함께 축하하고 회원사들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오. 전화 728-4401.



독특한 주조기술 보유자로 ESCO업계에 널리 알려진 최석곤 회장님. 그의 전매 특허(?)는 마셔본 자만이 논할 수 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줄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등산배낭과 모자에 수건, 우산, 손전등까지... 'ESCO협회 행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산세를 즐기며 하산하는 길. 최석곤 회장님이 1등! 따라올테면 따라와바~



금호전기 ESCO팀 3인방. 이들은 앞으로도 ESCO협회 행사에는 드사 참여할 것을 금호전기의 전통으로 맹세했다.



금호전기 ESCO팀 3인방. 이들은 앞으로도 ESCO협회 행사에는 드사 참여할 것을 금호전기의 전통으로 맹세했다.

農者天下之大本



관악산 지인들에게 인사했다.

관악산 지인들에게 인사했다.

서경복